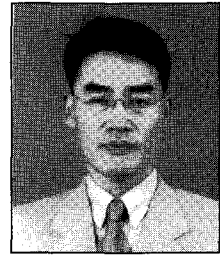


>>>

체계적 포장 이론 갖춘 전문 포장인 되고자

포장전문가간 교류 및 학합 필요



이성남
제팩 부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7일 제66회 기술사 자격시험 합격자 507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 중 포장기술사는 8명이다.

이번 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이성남 제팩 부장은 “이제 진정한 포장의 전문 기술인이 되었다는 데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포장발전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남 부장은 1984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입사해 1985년도에 포장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포장개발부의 주임연구원 시절 “대일무역역조개선을 위한 디자인포장개선 사업”을 담당하면서 많은 업체들의 포장개선 사업을 수행,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와 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성남 부장은 “포장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듯 이성남 부장이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결과이며 포장기술사인 지금의 이준제 제팩 사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이성남 부장은 앞으로 “노력하는 기술사”, “공부하는 기술사”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

고 싶은 생각도 있고 후진 교육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능형 포장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능형 포장이라고 하면 진공포장, 가스충진포장 등을 포함하는 Active Packaging과 진동, 충격, 온도, 습도 등에 반응하는 Indicator 등을 포함하는 Smart Packaging, Mechanical Packaging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Smart Packaging에 속하는 충격에 반응하는 라벨(Shockwatch) 및 진동, 충격, 온도, 습도, 압력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Shocklog) 등을 활용하여 포장을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외 단시간에 포장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 포장프로그램인 CAPE나 Truckfill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테크닉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성남 부장은 현 포장에 대해 “포장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법령 제정과 대표기관 설립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에 미력하나마 포장발전 일조를 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성남 부장의 포장 기술사로서의 활약에 주목해 본다. ☐